지역 소식통

김제, 청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청년의 생활 수준 향상과 생계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의 생활 수준 향상과 생계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1인 가구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4일까지며, 신청서 접수 후 자격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1일 기준 김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며, 사이버대학 또는 디지털 대학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30만원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8학기 24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기숙사생의 경우 기숙사 입소확인서, 원룸 등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유사 사업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여름철 자연재난 준비 이상 무"

김제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여름철 풍수해 복합재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23일 오후 3시 만경 능제저수지(만경읍 만경리 726-9) 일원에서 17개 기관 · 단체 150명과 장비 55대를 투입해 '2024년 풍수해 재난대응 실행기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작년 6월 27일부터 한달 동안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시는 김제시재난대책본부(본부장 정성주 김제시장)와 김제시통합지원본부(본부장 이찬준 부시장)를 가동한 실제 현장훈련으로, 김제소방서, 김제경찰서, 제8098부대 3대대 등 19여개 유관기관 · 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훈련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했음을 가정한 뒤, 사전 예찰활동, 시설물 점검 등 1단계 초기대응부터, 2단계 비상대응 만경강 범람,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3단계 이재민 구호활동, 시설물복구, 환경정비로 수습복구된다는 재난 상황을 설정한 뒤,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시, 얼마만큼 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김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현장에는 구조보트, 드론, 굴삭기, 청소차량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됐으며 폭발음, 연막탄 등도 활용해 실제 재난현장과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훈련 참가자들은 상황전파는 물론, 긴급구조 활동 및 수습 · 복구활동까지 재난상황 전반에 대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실제 상황에 대한 준비했다. 더불어 현장훈련과 동시간대 실시간으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토론훈련이 진행됐으며, 13개 협업부서 및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임무와 역할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토론훈련은 재난현장 관리, 원활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추가 피해에 다른 대책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뤄졌으며, 그 밖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 발대

직매장 수시 점검

완주군이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을 발대하고, 로컬푸드 1번지 완주의 명성을 이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지난 22일 완주군은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 3층에서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 직매장 운영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22일 완주군은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 3층에서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 직매장 운영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10년째를 맞은 완주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은 다양한 연령층의 주부, 자영업자 등 평소 로컬푸드에 관심과 애착이 많은 주민들로구성됐다.

위촉된 모니터단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유통기한, 표시기준, 품질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직매장 운영에 관한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로컬푸드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2024 K-웰니스 브랜드 대상 수상 쾌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K-웰니스 브랜드 대상(농산부문)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 시는 우수한 농식품 기업, 농가의 육성과 마케팅에 대해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4년 연속 농산부문에서 K-웰니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업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이번 행사는 온 ·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파워유튜버 방문 촬영, 유명 라이브커머스 채널의 전문 쇼호스트의 현장 방송, 국내외 대형유통 바이어 현장 미팅 및 수출상담회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22일 완주군을 비롯한 전주, 나주, 음성, 진천,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원주, 김천, 진주, 제주 서귀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 대승한지마을에서 협의회가 열렸다.

전국혁신도시협, 실무회의 개최

완주군, 우수사례 공유 · 혁신도시 발전 방안 논의 등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완주군에서 열렸다.

지난 22일 완주군을 비롯한 전주, 나주, 음성, 진천,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원주, 김천, 진주, 제주 서귀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 대승한지마을에서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로 하도록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안건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신속발표 및 기존혁신도시 우선배치 공론화 △혁신도시 정주여건 등 활성화 국비지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개정 건의 △클러스터 용지 금지항목 개정 등 혁신도시 발전이다.

또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지역상생, 정주여건, 지역산업)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현재 정부는 2차 이전을 올해 11월 완료되는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7월 정례회에서 채택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게 집중 건의하고, 전국혁신도시 회원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다"며 "지역거점으로 자리잡아 국가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 소통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우수기관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올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전북도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김제가 명실상부하게 '미세먼지 저감' 관련 우수 지역으로 인정받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된 후 올해 다섯 번째 추진되고 있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과 우수성, 계절관리제 홍보 · 소통 노력, 시행협조 등 총 8개 지표를 토대로 실시됐다. 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공해전 금지 캠페인 추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홍보 및 단속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시는 5,863대의 배출가스 4, 5등급 자동차 소유주에게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드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강화해 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